

수소생산·충전기술까지, 한-홍콩, 수소 협력 확대

- 18일 홍콩 전기기계서비스부와 수소 협력 업무협약 체결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5월 18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‘홍콩 수소 심포지엄 2026’에 참석하여 홍콩 전기기계서비스부(EMSD)*와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정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* 전기기계서비스부(Electrical and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) 홍콩특별 행정구의 가스·전기·철도안전 법규 제정·운영 및 인·허가부서

○ 이번 협약은 한국이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축적한 풍부한 경험을 높이 평가한 홍콩 측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되었으며, 두 기관은 수소의 생산, 저장, 운송, 활용에 이르는 생태계 전 분야에서 기술 발전과 정보 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.

□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수소도시 조성 사업의 정책방향과 그 간의 추진현황을 소개하고, 한국형 수소도시 모델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.

□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소 관련 정책과 표준화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, 수소 인프라 운영 경험을 교류하고 기업간 파트너십을 통한 현지 실증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.

○ 이러한 협력은 국내 수소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. 한국의 수소도시 구축 경험이 홍콩 현지의 인프라 도입 과정에 참고가 되어 기술 장벽 완화 및 민간 차원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-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“이번 홍콩과의 협력은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제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” 이라고 강조하며,
- “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및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여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축적된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” 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	책임자	과 장	김형철 (044-201-3730)
		담당자	사무관	박가나 (044-201-3733)
			주무관	안영경 (044-201-4849)

참고

수소도시 조성사업

□ 사업 개요

- (목적) 수소를 주거, 업무, 교통,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, 저장·이송(배관 등), 활용(연료전지, 충전소 등)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
- (유형)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·도자율편성사업
 - * ('20~'22) 일반회계, 지방정부 공모·선정 → ('23~) 지특회계, 지방정부 자율편성
- (기간) '20년 ~ 계속(계속사업)
- (예산) 도시별로 국비 200억원 이내 지원(지방비 매칭)

□ 수소도시 현황(현재 기준)

